

세종대학교 2018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예시 답안

1. 제시문(가)는 인도문명에 대한 간디의 설명이고, 제시문 (다)는 황허문명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 (가)와 (다)의 주장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제시문 (가)는 문명이 인간의 마음과 열정을 자제하며 도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간디의 주장을 담은 글이고, 제시문 (다)는 황허문명의 중요한 특징인 봉건제와 종법제, 천명사상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제시문 (가)와 (다) 모두 인간의 도덕적 자질이 문명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그 도덕적 자질이 통치자의 절대 권력보다 상위에 있는 요소임을 설명하고 있다. ‘왕과 왕의 칼을 윤리의 칼보다 하위’에 놓은 것, ‘통치자의 도덕적 자질에 따라 천명이 이동한다’는 사상이 그 예이다. 반면 제시문 (가)는 도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데 반해, (다)는 도덕을 통치의 수단으로 보았다. 또한 (가)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욕망을 중심으로, 마음과 열정을 자제함으로써 도덕을 준수할 것을 설명했다면, (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치자의 정치적 욕망을 중심으로, 도덕적 자질을 어떻게 ‘예’를 통해 구현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78자)

2. 제시문 (가)의 간디의 주장을 (나)와 (다)를 활용해 비판하거나 또는 제시문 (나)의 허생의 주장을 (가)와 (다)를 활용해 비판하라.

1) 제시문 (가) 비판

제시문 (가)에서 문명은 인간이 소유욕과 사치, 쾌락을 절제하고 정신적 행복을 추구해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문명 개념을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의 정신적·도덕적 가치로 국한해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에서 간디가 주장한 내용 즉, 인간이 사치와 쾌락을 단념하고 여전히 옛 오두막집에 산다거나 과거의 교육을 고수하는 것, 심지어 다른 누구로부터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배타적 의식 등은 문명이라기보다 오히려 비문명적이고 반문명적이다. 또 도덕 정신 상실을 이유로 기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기계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도덕성은 여전히 중요한 삶의 가치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증될 수 있다. 이렇게 물질문명을 외면하고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는 삶의 방식은 결국 국가의 힘을 약화시켜 주변 강자의 침탈을 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했던 정신적 행복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문명은 오히려 (나)의 허생의 주장처럼, 시대의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적극적 탐색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조선이 청과 손을 잡고, 선비의 유학을 장려하거나 상인의 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실리적인 부국강병의 길이자 다른 문명과 교류이다. 즉 문명이란 물질문명의 토대 위에 정신적 가치를 지키고, 다른 문명과 교류함으로써 더 큰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문명은 물질문명뿐만 아니라 제도나 정신문화 등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쟁기에서 나아가 기계를 활용하는 것, 오두막집에서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명의 발전이며, 안정적 사회 질서를 구현하는 것 역시 발달된 문명의 한 모습이다. 간디가 제기한 대도시의 치안 불안, 빈부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는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통해 통제 가능하다. (다)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 즉, 제후에게 경제적·군사적 의무를 부여한 봉건제, 국가와 가족의 상하 구조를 규정한 종법제, 도덕과 학문에 의한 정치체제가 발달할 수 있도록 한 천명사상 등이 그러한 제도문화이자 정신문화의 한 예이다. 주나라는 이러한 제도와 사상을 바탕으로 황허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문명은 물질적 발전이나 경쟁을 거부하고, 정신적·도덕적 가치만을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신적·도덕적 가치가 물질적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사회적 질서 위

세종대학교 2018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예시 답안

에서 발현되었을 때 문명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1188자)

2) 제시문 (나) 비판

제시문 (나)는 조선이 청에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실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예법을 고수하는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조선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허생의 주장대로 청의 호걸과 결탁하거나, 문인이나 상인을 보내 그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방안은 이렇게 강대국과 손을 잡을 게 아니라, 조선 자체의 국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에서 제시한 주나라의 예처럼, 도덕과 학문을 기초로 한 정치체제나 사회 질서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중범제나 천명사상은 주나라에 적합했던 정치제도이자 사상이었다. 그러나 후대에 주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인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그 시대에 맞는 정치체제와 사회 질서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지, 주변 나라와 결탁했기 때문이 아니다. 조선 역시 어떤 나라, 어떤 호걸과 먼저 결탁한다고 해서 나라의 힘이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허생은 실리를 위해 명분을 버릴 것을 주장하며, 예법을 고수하는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오랑캐 땅에 태어났으므로 사대부라고 뽐낼 수 없으며, 흰 옷은 '상인(喪人)'의 옷이고 상투는 오랑캐의 습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극히 자기비하적인 발상이자 중국 중심적인 사고이다. 흰 옷은 백의민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며, 상투가 오랑캐의 습속이라고 하는 것 역시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무시한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상투 등은 복식문화인 동시에 마음의 덕이 겉으로 표출된 '예'에 해당한다. 즉 상복으로서 흰 옷을 입는 것은 마음의 덕을 예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가)에서 언급한 마음과 열정에 대한 자제력이 겉으로 표현된 것으로, 도덕의 준수이자 문명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물질적·현실적 이익을 위해 전통적 예법을 벗어던지고 되놈의 옷을 입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나라의 정신적 가치를 버리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예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적 가치나 민족의 정체성, 사회적 질서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1189자)